

르노삼성차, 상반기 수출 누계 실적 70,914대

2000년 출범 후 상반기 최대 수출 실적 기록

르노삼성자동차(대표이사: 장 마리 위르피제)는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수출 70,914대를 기록, 2000년 9월 르노삼성 출범 후 상반기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는 올해 1월 본격 수출을 시작한 SM5의 유럽 시장에서의 인기 및 2006년부터 본격 수출을 시작한 SM3과 2008년 선보인 글로벌 전략 차종 QM5의 꾸준한 주문량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

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올해 3월 수출 누적 40만대 돌파, 5월 QM5 최초의 반제품 수출 개시, 6월 상반기 최대 누적 수출 기록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하며 수출 관련 새로운 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출범 당시 192대로 시작한 수출이 작년 기준으로 115,783대를 기록하여 600배 이상 신장했다.

이러한 수출 증대는 단순한 통계

수치상의 의미를 넘어, 부품 협력 업체의 CAPA 증대, 규모의 경제 실현, 부산 경제 활성화 등 르노삼성자동차의 질적,양적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이러한 수출 증대를 통해 수익성 측면에서 내수 및 수출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르노-닛산 앨라이언스 내부에서 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함은 물론,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 특히, 르노삼성차와 르노가 공동

개발한 차량을 르노와 닛산의 전세계 판매 네트워크를 통해 수출하고, A/S망 등 각종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그룹 내 시너지 효과 를 배가 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 수출을 총괄하고 있는 나기성 전무는 “상반기의 최대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유연한 생산 시스템과 국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하반기에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2012년형 쏘나타 출시

누우 2.0 LPi 엔진 신규 탑재

현대자동차(회장 정몽구)는 차세대 엔진 탑재를 통해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내외관 디자인과 안전 및 편의 사양을 대폭 강화한 ‘2012년형 쏘나타’를 출시하고 지난 13일부터 본격 시판에 들어갔다.

‘2012년형 쏘나타’에는 지난 11일 첫 선을 보인 터보 GDI 엔진에 이어 누우 2.0 LPi 엔진이 새롭게 탑재돼 동급 경쟁 모델을 월등히 뛰어넘는 동력성과 연비를 구현했다.

장애인용 및 영업용으로 판매되는 LPi 모델에는 누우 2.0 LPi 엔진과 6단 자동변속기가 새롭게 탑재되면서 동력성과 연비 효율이 크게 향상되고 한층 부드러운 변속감을 구현했다.

이들 통해 쏘나타 LPi 모델은 최고 출력 157마력 (ps), 최대 토크 20.0kg.m를 확보해 경쟁 차종의 가솔린 모델을 뛰어넘는 성능을 달성했으며, 10.5km/ l의 우수한 연비에 저렴한 연료비까지 더해져 최고 수준의 경제성을 자랑한다. (자동변



현대자동차가 차세대 엔진 탑재를 통해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내외관 디자인과 안전 및 편의 사양을 대폭 강화한 ‘2012년형 쏘나타’를 출시하고 지난 13일부터 본격 시판에 들어갔다.

속기 기준)

현대차는 11일부터 본격 판매에 들어간 쏘나타 터보 GDI 모델에 연료 직분사 방식과 터보차저 시스템을 적용한 ‘세타 II 2.0 터보 GDI’ 엔진을 장착, 최고출력 271마력(ps), 최대 토크 37.2kg.m, 공인연비 12.8km/ l 등 최고 수준의 엔진 기술향을 선보인바있다. (자동변속기 기준)

‘2012년형 쏘나타’는 기존 모델의 개성 넘치며 역동적인 디자인 콘

셉트를 계승하면서 중형 세단에 걸맞는 세련된 감성적 디자인 요소를 곳곳에 가미했다.

특히 고급스러우면서도 세련된 이미지의 라디에이터 그릴을 신규 적용했으며, 새롭게 디자인된 멀티 리플렉션 방식의 LED 리어 콤비램프와 스포티한 느낌의 18인치 알로이 휠을 통해 2012년형 쏘나타만의 차별화된 스타일을 완성했다.

또한 ‘2012년형 쏘나타’에는 LED 램프와 ‘오 토디포그 시스템’이 각각 동급 최초로 적용돼 안전하고 쾌적한 드라이빙을 구현하며 고객에게 최상의 편의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LPi 모델에는 6단 자동 변속기 선택시 액티브 에코 시스템을 기본화, 실연비 향상을 통해 경제성을 더욱 높였으며, 특히 장애인 전용 모델에는 운전자가 제어하기 힘든 상황에서 차량의 주행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차체 자세 제어장치(VDC)를 기본화해 장애인 고객의 안전성을 극대화했다.

이 밖에도 ‘2012년형 쏘나타’는 ▲글로벌 박스 콜링 기능 ▲아웃사이드 미러 퍼들램프 ▲자외선 차단 전면 유리 ▲천연 향균 시트 ▲패닉 기능이 추가된 풀타임 일체형 무선 도어 잠금장치 등 고객 선호가 높은 사양을 기본화했으며, 버튼 시동 스마트키를 확대 적용해 고객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2012년형 쏘나타’는 2.0 가솔린, 2.0 터보 GDI, 2.0 LPi의 세 라인업으로 구성됐으며, 판매 가격은 2.0 가솔린 모델이 ▲2,190만원~2,800만원, 2.0 터보 GDI 모델은 ▲2,850만원~2,960만원, 2.0 LPi 모델(영업용)이 1,610만원~2,040만원이다. (자동변속기 기준)

‘2012년형 쏘나타’는 2.0 가솔린, 2.0 터보 GDI, 2.0 LPi의 세 라인업으로 구성됐으며, 판매 가격은 2.0 가솔린 모델이 ▲2,190만원~2,800만원, 2.0 터보 GDI 모델은 ▲2,850만원~2,960만원, 2.0 LPi 모델(영업용)이 1,610만원~2,040만원이다. (자동변속기 기준)

쉐보레 ‘말리부’의 안락함, ‘오스카’에게 물어보세요!

GM의 특허기술 ‘오스카’로 최적의 인테리어 완성



한국지엠주식회사가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차세대 글로벌 중형차 쉐보레 (Chevrolet) 말리부 (Malibu) 인테리어 개발 기술의 핵심인 ‘오스카(OSCAR)’를 일반에 공개했다.

오스카는 엔지니어링과 실내 디자인을 위한 시뮬레이션 도구로, 제너럴 모터스(이하 GM)가 특허권을

보유한 3차원 마네킹. 오스카는 말리부의 제품개발 과정에서 최적의 실내공간과 안락함을 도출하는데 중요한 수치들을 엔지니어와 디자이너에게 제공한다.

약77kg인 오스카는 18개 고정 부품으로 이뤄져 있으며, 강철, 플라스틱, 알루미늄 등의 소재로 되어 있다.

1940년대 중반, 항공기 개발에 사용됐던 항공용 더미(dummy, 인체 모형)에 착안, GM은 항공용 더미와 차별화해 차량내 최적의 공간과 안락함을 실현할 수 있는 차량용 더미를 개발, 1961년 특허를 받았다.

이는 차후 ‘오스카’라는 짧은 이름으로 불리게 됐으며, 1963년 모델들을 시작으로 새로운 산업용 설계 시스템의 핵심이 됐다.

GM의 말리부 시트 성능 엔지니어인 다니엘 코헨(Daniel Cohen)은 “오스카는 우리의 고객을 대변한다. 마치 건축가가 건물의 토대를 잘 맞추기 위해 척도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오스카를 사용한다.

오스카는 엉덩이 부분, 즉 ‘H’ 포인트를 축으로 사람의 허벅지를 비롯한 몸의 실제 중추를 모방해 만들어졌다.

H 포인트를 근간으로 엔지니어와 실내 디자이너들은 필수적인 헤드룸과 최적의 등 각도를 결정한다. 이러한 모든 데이터는 말리부가

전 세계 고객들을 상대로 최상의 공간과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전대, 페달, 리어뷰 미러, 인스트루먼트 패널 및 기타 사양들의 위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한편, 쉐보레의 차세대 중형차 ‘말리부’는 올해 4월 상하이 모터쇼와 뉴욕 오토쇼에서 공개된 바 있으며, 한국을 필두로 중국과 미국, 유럽을 포함한 1백여 국가에서 판매될 예정. 카마로와 콜벳에서 영감을 얻은 매력적인 외관과 여유롭고 정숙한 실내공간, 고효율 고성능의 4기통 에코텍(Ecotec) 엔진 및 차세대 6단 자동변속기 탑재, 고급 스포츠 세단의 정교한 주행성능, 최첨단 에어백 시스템과 지능형 안전장치를 통한 최고 수준의 안전성 실현으로 글로벌 중형차로서의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

관련 사항은 쉐보레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chevroletclub)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혼다코리아, 누적 판매대수 4만대 돌파

혼다코리아(대표이사정우영)는 지난 1일 국내 누적판매대수 4만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혼다코리아는 2004년 국내 시장 진출 이후 2008년 수입차 최초로 연간 판매대수 1만대를 기록하며 전체 수입차 판매 1위를 달성했다.

그리고 2011년 7월, 국내 진출 7년 만에 누적 판매대수 4만대 돌파를 기록하였다. 이는 BMW, 렉서스, 벤츠에 이어 혼다가 4번째이다.

현재 혼다코리아의 판매 차종은 어코드, CR-V, 시빅, 인사이트, 레전드 5개이다.

모델별 판매 순위로는 혼다 베스



좌측부터: 박영진 Honda Cars 피존 영업대표, 정병의 고객, 혼다코리아 박종석 상무, 추상철 Honda Cars 피존 영업팀장

트셀링 모델인 어코드가 가장 많이 판매되었으며, 최정상 수입 SUV 모

델 CR-V가 그 뒤를 이어 4만대 돌파에 큰 기여를 했다. 어코드는 2007년

7월, 월별 수입차 단일 판매 차종 최고 기록을 세웠으며 같은 해인 2007년, CR-V는 수입차 전체 판매 모델 1위를 기록하였다.

어코드는 지난 6월까지 19,172대를 판매를 기록하여 총 판매대수의 48.6%를 차지하고 있으며, CR-V는 13,670대 판매로 수입 SUV 베스트셀링 모델로써 고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혼다코리아 관계자는 “한국시장 진출 이후 혼다 브랜드에 대한 변함 없는 관심과 신뢰를 보내준 고객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압도적인 고객 만족을 실현하는 동시에 수입차의 대중화에 앞장 서겠다”라고 밝혔다.



장마리 위르피제 르노삼성차 사장이 기자 시승회에 앞서 All-New SM7 차량을 소개 하고 있다.

‘All-New SM7’ 8월 출시, 시장변화예고

르노-닛산앨라이언스의 최첨단 기술 바탕 품질과 가치 계승

‘유러피안 프레스티지’ 컨셉트를 기반으로 우아하고 세련된 스타일을 추구

“국내 자동차 준·대형시장을 평정할 자부심을 갖고있다”

“이번 기자시승회의 목적은 객관적인 검증과평가를 통해 차별화된 최고의 자동차라는 인식 제고에 있다”

“경쟁차종에 비해 월등한 디자인과 운전의 즐거움만으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있다”

르노삼성자동차(대표이사: 장 마리 위르피제)는 지난 14~15일 남해 힐튼리조트(경상남도 남해군 소재)에서 기자 시승회를 통해 (All-New SM7)을 선보이고, 8월 중순부터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신감이 넘쳤다.

남해일원에서 3시간여 진행된 시승행사를 마친 소감은 한마디로 ‘굿’. 시승 참가자들은 세련된 스타일과 한층 넓어진 실내공간, 드라이빙의 묘미를 만끽할수있는 스포츠 모드,패들 시프트 그리고 강화된 핸들링과 승차감등에 많은 점수를 줬다.

〈All-New SM7〉으로 명명된 SM7 풀모델 체인지 2세대 모델은 32개월 동안 4천여억원 투자하여 개발됐으며, 르노삼성자동차 고유의 최고 품질과 가치를 계승하고 르노-닛산앨라이언스의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준대형 소비자의 기대와 니즈를 뛰어넘는 르노삼성자동차의 최고급 플래그십 모델이다.

〈All-New SM7〉은 우아하고 세련된 ‘유러피안 프레스티지’라는 컨셉트의 디자인을 추구하였으며 최상의 편안함을 구현하기 위해 넓은 실내공간, 프리미엄 웰빙사양, 최고수준의 정숙성과 승차감 제공에 중점을 두어 개발됐다. 기존 모델 대비 70mm 이상 늘어난 뒷좌석 무릎 공간과 넉넉한 헤드룸, 솔더를 통해 동급 최대 수준의 넉넉한 실내공간을 확보했다. 특히 동급최초로 적용된 에비에이션(항공기식) 헤드레스트와 기존 국내 준대형차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최적의 공기 시스템 등을 포함한 프리미엄 웰빙사양들을 적용했으며 동급 최고수준의 정숙성과 승차감을 통해 최상의 안락함을 구현하였다. 또한 동급 최초로 스포츠 모드 및 패들 시프트 등을 적용하여 운전의 즐거움을 극대화하여 준대형차 시장에서 고품격 프레스티지 세단으로 새롭게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ll-New SM7〉은 미국의 자동차 전문 조사기관 워드(Ward’s)가 14년 연속 세계 10대 엔진으로 선정된 닛산의 VQ엔진이 탑재됐다. 3세대 VQ엔진은 구동계의 저마찰 설계, 시스템 제어의 최적

화, 흡배기 시스템 개량, 다수의

삼원 촉매 사용, 이리듐 점화 플러그 등을 적용하여, 그 명성에 어울리는 최고의 성능과 내구성을 구현한 엔진이다.

이와 함께 대용량 토코 컨버터를 가진 신규 수동 겸용 6단 자동 변속기 적용으로 변속감이 대폭 향상되어 우수한 드라이빙 성능을 구현하였다.

3.5 VQ 엔진(6단 수동겸용 자동 변속기), 2.5 VQ 엔진(6단 수동 겸용 자동 변속기) 2가지 엔진이 탑재되었으며, 각 엔진에 3개 트림씩을 선보여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를 만족시킬 예정이다.

km/ l의 연비를 제공한다.

가격은 3,000만원대 ~ 3,900만원대(기준: SM7 SE Pleasure 트림 2,880만원 ~ RE35 트림 3,770만원)으로 책정하여 향상된 성능 대비 합리적인 경쟁력을 갖추으로써 기존 준대형차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 장마리 위르피제 사장은 “〈All-New SM7〉은 세계 최고수준의 르노-닛산앨라이언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품질,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 최상의 안락함과 운전의 즐거움을 동시에 구현하여 준대형차량이 갖추어야 할 모든 가



남해의 절경 속을 질주하는 All-New SM7 시승차량 행렬은 장관을 연출했다.

VQ25 엔진은 최대출력이 190마력으로 현재 SM7보다 15% 이상 향상되었고, 4,400rpm에서 24.8 (kg.m) 토크를 구현함으로써 상용영역에서 최적화된 파워를 제공하고 뛰어난 연비 향상 기술과 함께 ESM(Energy Smart Management) 등 에너지 최적 제어 기술을 적용하여 11km/ l의 연비를 실현하여 고객의 가치를

치를 보유한 르노삼성자동차의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이다”라고 말하고 “하반기 국내 준대형차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명실공히 한국 최고의 프리미엄 준대형 세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M7은 2004년 12월 첫선을 보인 이래, 자동차 전문조사기관 “마케팅 인사이트”에서 실



All-New SM7의 실내공간은 넓고 · 안락함을 승차자에게 전달했다.

극대화 하였다.

VQ35 엔진은 최대출력이 기존 모델보다 20% 이상 향상된 258마력을 구현하였으며, 33.7 kg·m의 최대토크를 제공하여 동급 최고의 출력과 파워를 자랑한다. 최대 토르가 4,400rpm에서 구현되어 상용영역에서 경쟁차 대비 월등한 파워를 느낄 수 있으며 9.6

시한 조사에서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핸들링과 정숙성 그리고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으로 3년 연속 상품성 1위, 2년 연속 전 차종 기준 스트레스 없는 차 1위를 차지하는 등 한국 준대형차 시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